

KOSBI ISSUE PAPER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현황분석과 중소기업금융 의 정책제언

- I. 서론
- II.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과 현상
- III. 국내 금융 및 경제 현황과 정부대책
- IV. 정책제언
- V. 종합의견

I. 서론

-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 실물경기 위축우려는 점증되고 있으며, 세계경기 위축은 대공황 때보다 더욱 크며, 그 피해정도의 크기가 자본주의 역사 이래 초유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미국은 과잉유동성에 의한 신용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부실로 확대되면서 신용경색이 급격하게 발생되고 있음
 - 미국의 금융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글로벌 금융불안과 함께 세계 실물경기 위축으로 전이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본보고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본질과 금융위기의 파급영향, 현상,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고 있는 현황,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금융 부분에 초점을 둔 정책제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음¹⁾
 -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봄
 -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고 있는 불안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함
 - 국내 은행권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경기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금융대책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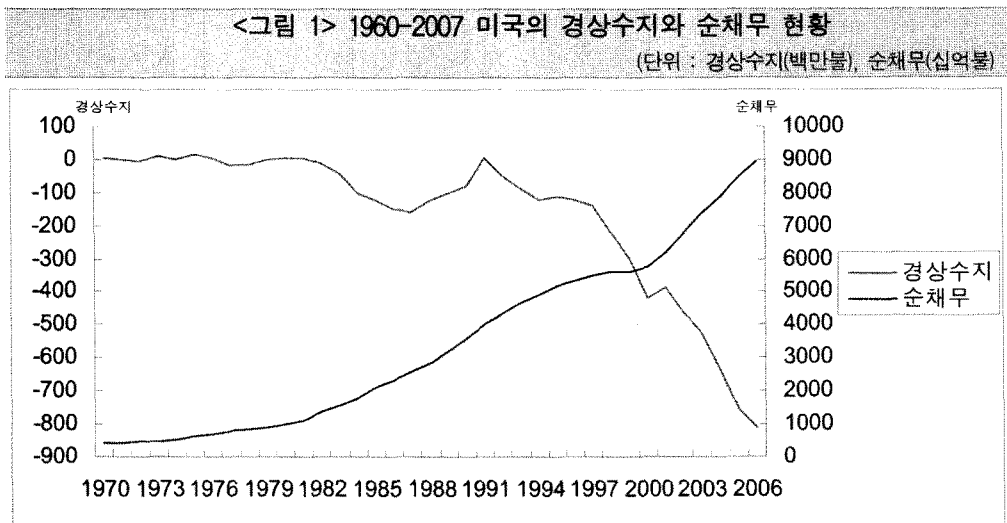
1) 본보고서는 경제위기극복 국민대토론회(민주정책연구원 주최, 2008.10.30)에서 본 연구자(송치승)의 토론발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

Ⅱ.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과 현상

1.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과 파급효과

□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

- 금융위기의 본질은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구조는 물론 과잉 유동성이 미국 내로 유입되는 구조 하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미국은 <그림 1>에서 보듯, 1970년 말부터 경상수지가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2007년 한해에만 7,39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연방정부 순채무는 2007년 말 현재 9조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음
 -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의 해외유출을 가져오고, 다시 해외로부터 미국에 유입되는 달러의 유동성 확대는 저금리를 야기하였고, 투자자로 하여금 저금리차입에 의한 고수익률 위험 자산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은행

- 금융위기 본질은 또한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들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 (예: CDO, CDS 등)에 대해 행한 무분별한 거래확대는 과다한 신용확대를 가져와 자산 가격의 거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 SEC는 2004년 6월에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CSE: 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을 마련²⁾
 - CSE 자격을 승인받은 투자은행은 표준적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대신 규제가 완화된 NCR을 적용받게 됨
 - 이에 따라 2007년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부채비율)는 순자본의 30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미국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가격의 하락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했던 장외파생상품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과 신용위험으로 전이되었던 데에 있음
 - 금융시장의 불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보다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된 금융 기관의 부실에 있었고, 부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현실에 있음³⁾
- 세계금융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은 유럽의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 못지않은 심각한 상태에 놓임
 - <표 1>에서와 같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총 손실규모인 436,109 백만불 중, European banks가 차지하는 금액은 181,527 백만불 규모로, 전체손실의 30%가 넘는 손실규모임

□ 미국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

- 미국 발 금융시장의 불안은 세계 실물경제에의 침체우려, 금융부실규모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상실, 자산가격의 급락 등으로 쉽게 해소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음

2) 이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한상범, 월가의 금융위기와 자기자본규제,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 weekly, 2008-40호, 2008.

3)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손실규모에 대해서 <표 1>에서와 같이 Credit Hux(2008.8.27)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장외파생규모에 의한 손실은 이 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1>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손실규모

(단위 : 백만불)

	ABS CDO	Corporate credit	RMBS exposures	other or undefined	All write-downs
Insurers/asset managers	50,067	4,792	10,183	19,821	84,863
North American banks	77,323	12,754	24,382	35,991	150,450
European banks	66,863	20,799	28,119	65,748	181,527
Asia/emerging market banks	8,638	1,221	2,654	6,755	19,269
Total	202,891	39,657	65,338	128,313	436,109

자료: 한국증권연구원

- 금융 불안에 대한 주요국의 구제금융 정책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융부실의 해소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임
- 미국 발 금융 불안에 의한 세계경제의 위축우려는 대공황보다 더욱 피해정도가 큰 자본주의 역사 이래 초유의 시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과거에는 한 쪽의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다른 쪽은 양호하여 어려운 국가의 위기를 흡수 해소할 수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흡수할 완충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이런 주장을 지지함

Ⅲ. 국내 금융 및 경제 현황과 정부대책

1.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경제상황

□ 우리나라 자금시장상황

- 비록 IMF와는 달리 기업의 부실 수준이 낮고(단, KIKO 예외) 금융부실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안심할 수 없는 구조임
 -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08년 6월말 현재 0.70%로 전년 말의 0.72%보다 오히려 축소됨
- <표 2>에서 나타난 은행권의 원화차입금과 원화사채는 2008년 6월말 현재 288.8조원이며, 은행의 CD 발행과 은행채의 차환발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연말에 도래하는 이들 채권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부족이 언급되고 있음

<표 2> 원화차입금 및 원화사채 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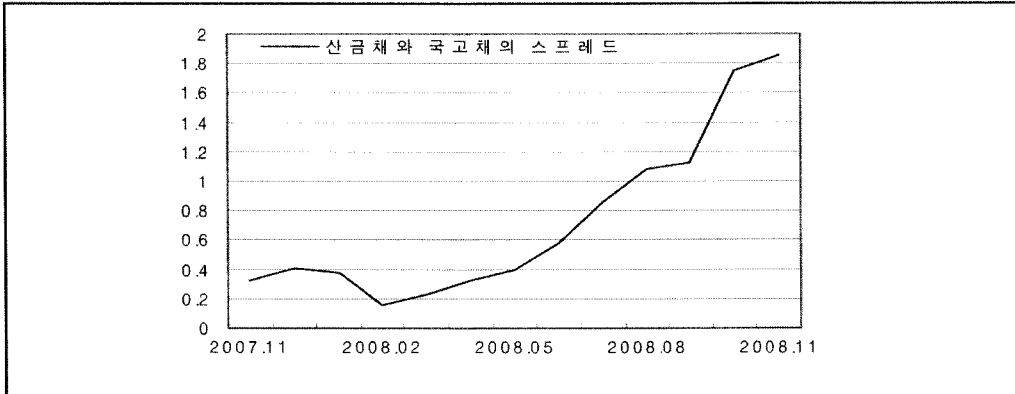
구분	2007.12말 현재	2008.1-2008.6
원화차입금	665,225	647,402
원화사채	1,950,235	2,240,921
합계	2,615,460	2,888,323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2008.10

- 2008년 3/4분기 들어 국고채 수익률과 은행채의 수익률 간 스프레드(spread)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은행채 대신 대용변수로써 산금채로 측정된 스프레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은행채 스프레드의 확대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의한 국고채 선호와 은행채에 대한 수요기피 현상에 기인
- 은행채의 만기도래가 2009년 상반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저축성 또는 예금성 수신의 비중 확대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8월-2008년 12월 은행채의 만기도래액은 33조원, 2009년 1월-2009년 3월 만기 도래액은 23조, 2009년 4월-2009년 6월의 만기도래액은 20조로 추정됨4)

<그림 2> 산금채1년과 국고채1년의 스프레드 차이

(단위 : %)



자료: 증권업협회

-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단기외채비율은 2006년 말 47.7%⁵⁾에서 2008년 3월말 현재 66.8%로, 유동외채비율(단기외채+잔존만기 1년 미만 장기외채)의 경우에도 2006년 말의 55.1%에서 2008년 3월말 현재 81.6%를 기록하여 외채구조의 단기화 현상을 보여줌
- 특히 은행의 단기외채비율(단기 및 1년 미만 장기외채)이 70-80% 정도로 알려져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국내은행은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은행의 신용도 하락 우려 등으로 은행 자체의 신용으로 해외에서의 자금차입이 곤란한 상황에 있음
- <표 3>의 2008년 6월말 은행의 외화차입금과 외화사채 현황에서 보듯이, 은행의 외화부채 규모는 전년 말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단기외채비율이 70-80%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외화차입금은 58.9조원(=841,922억원 * 70%)으로 추정됨

<표 3> 외화차입금 및 외화사채 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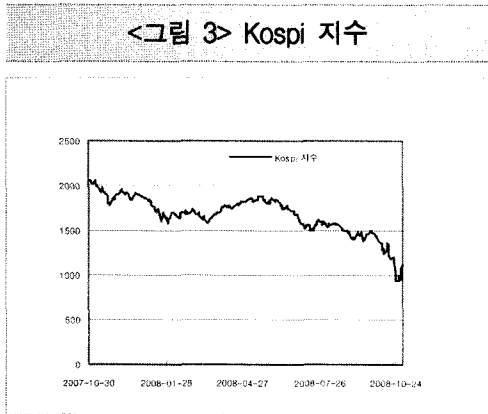
구분	2007년 말 현재	2008년 6월말 현재
외화차입금	669,307	841,922
외화사채	438,036	552,178
합계	1,107,343	1,394,100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20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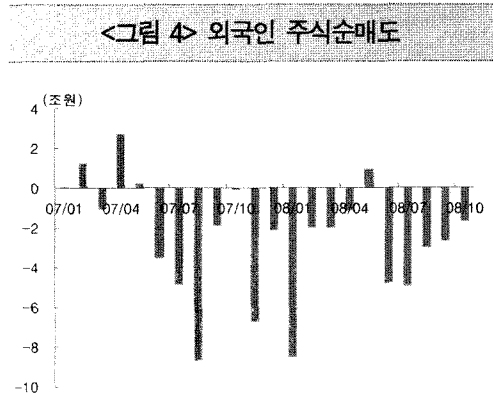
4) 자료: 구분성, 은행채 스프레드와 수신구조, 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17권 42호, 2008
 5) 자료: 금융연구원

□ 우리나라 자본시장상황

- <그림 3>에서 나타난 국내 주식시장은 달러가치상승에 의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 경기침체우려, 외국인의 순매도 지속 등으로 급락을 지속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 외국인의 순매도는 자국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금마련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되며, 국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7년 연간 누적 순매도액은 <그림 4>에서 나타난 외국인주식 순매도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2008년 10월말 누적 순매도액은 <표 4>에서 보듯이,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최근 2개월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9.4조원을 기록하고 있음

<표 4> 외국인 KOSPI 순매수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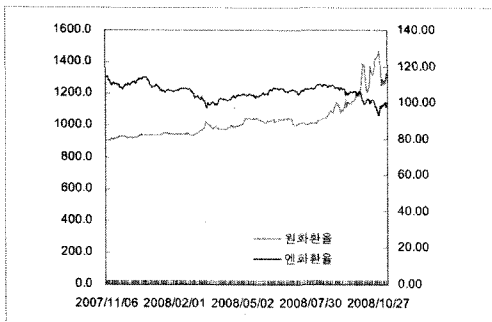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외국인 KOSPI 순매수	△305,908	△233,868	△287,422	△324,457	△361,842	△418,208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 우리나라 외환시장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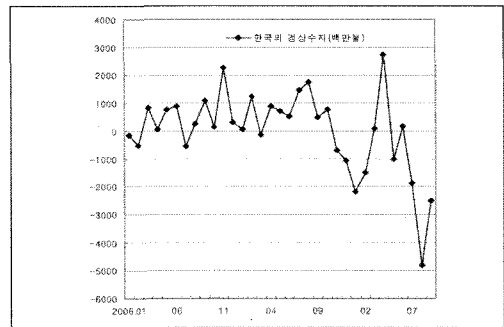
- 최근 경상수지의 적자지속, 은행의 해외차입금의 상환, 외국인의 순매도 등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는 초과수요 상태에 있음
 - <그림 5>에서 보듯이, 달러는 일본 등의 화폐에 대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특수 상황에 의해 원화에 대해 강세 상태에 있음
 - <그림 6>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7월부터 지속되고 있음

<그림 5> 원달러, 엔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한국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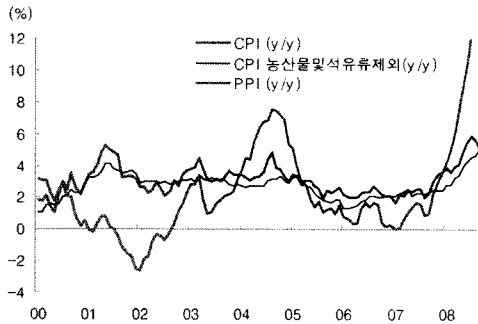


- 경상수지의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치가 우리경제에는 절실한 상황임

□ 우리나라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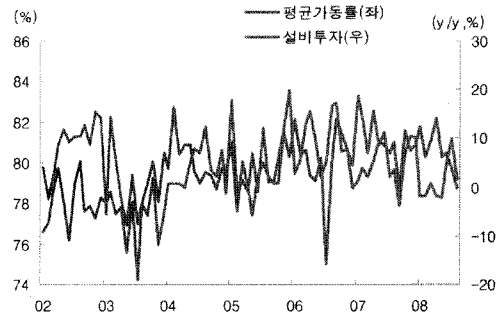
- 우리경제는 미국 발 금융 불안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물가불안, 소비와 투자부족, 경제 산업 구조변화(요소투입산업에서 기술혁신산업으로 변화)에 의한 저고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음
 - <그림 7>에서 보듯이 물가불안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림 8>의 설비투자는 금년 들어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발 금융 불안 이후에는 주식가격의 급락, 부동산 가격의 하락우려에 의한 소비와 투자위축, 은행부실의 우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위축에 의한 수출 부진의 예상 등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7>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자료: 통계청

<그림 8>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



□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투자은행체계의 오해

- 미국 금융위기를 가져온 투자은행의 무분별한 장외파생거래를 놓고 내년 도입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의 금융투자회사(투자은행)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위기는 투자은행체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계소홀에서 발생한 것임
 - 한 실례로서 같은 투자은행 중 위험관리를 엄격히 행한 Goldman Sachs는 건재한 반면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Merrill Lynch는 BOA에 흡수 합병됨
- 파생상품의 본질은 위험이전에 있으며, 위험관리소홀 시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체계의 구비는 매우 중요함

2. 최근 정부대책 및 시장반응

- 정부는 미국발 금융불안이 국내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 5>에서와 같이 일련의 금융 및 경제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여기서는 <그림 2>의 금리스프레드, <그림 3>의 주식시장, 그리고 <그림 5>의 외환시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요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함

<표 5> 금융위기 및 경기위기관련 정부대책

일시	대책	주요내용
2008.10.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 (한나라당과 정부간 협의)	4조 3000억원의 자금 지원과 4조원의 신용공급을 포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마련
2008.10.2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외화유동성 해소 위해 외환보유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재할인 방식을 통해 실제 필요한 기업에 외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2008.10.6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외화 유동성 공급	외화스왑시장에 100억불 이상, 수출입 은행을 통해 50억불의 외화유동성 공급
2008.10.19	금융시장불안 대책	· 국내은행이 \$1,000억 한도 내에서 2009.6.30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 08.10.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발효될 때까지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 · 한국은행, 정부가 함께 300억불의 외화유동성 추가 공급
2008.10.23	유동성 공급확대 대책	·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9조원으로 2.5조원 확대 · 기업은행 1조원 현물출자
2008.10.27	유동성 공급확대 대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RP 적격 대상증권 확대 (RP도 거래대상 은행채에 포함)
2008.10.30	외환시장 안정 대책	· 한미 통화스왑 300억불 체결 · 금감원 원화유동성 지도비율 완화(3개월→1개월)
2008.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추가로 5천억원을 출연,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총보증공급 규모를 6조로 확대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 6000억원으로 확대해 내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 (100억달러 추정)의 2배 이상의 재원을 확보 ·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신규로 1조 3000억원 현물출자

- 정부의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은 <그림 2>의 산금채와 국고채간 스프레드에서 보듯이, 10월 이후 스프레드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책효과는 다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은행의 유동성 확충에 대한 정부대책이 대책이전에 비해서는 은행에 대한 위험이 낮아지고 있지만 은행권이 직면하고 있는 은행채 상환 또는 차환발행 등에 가시적인 효과를 크게 나타내고 있지 못함을 의미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RP 대상으로서 은행채 매입이 본격화되거나 은행수신이 증가하는 경우 스프레드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대책은 한미 통화스왑(\$300억)체결과 국회의 \$1,000억의 해외채무 보증 본회의 통과로 인해 급격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미 통화스왑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심리적 효과가 큼을 의미함
 - 우리 외환시장의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해외차입이 원활해지기전까지 급격한 환율하락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10월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했다는 사실은 외환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일련의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주식시장은 10월 27일 기점으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확대에 의한 은행권의 유동성 위험감소, 한미통화스왑에 의한 외환시장의 우려감소,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은 패닉상태에 있던 주식시장을 다소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 금융불안은 정부의 제 대책으로 인해 감소되는 모습이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임
 - 우리 외환시장의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 은행권의 자금조달 원활화, 금융불안의 실물전이 위험 최소화, 실물경기의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의 부실우려 축소 등이 현재화되기 전까지 금융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대비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제시는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IV.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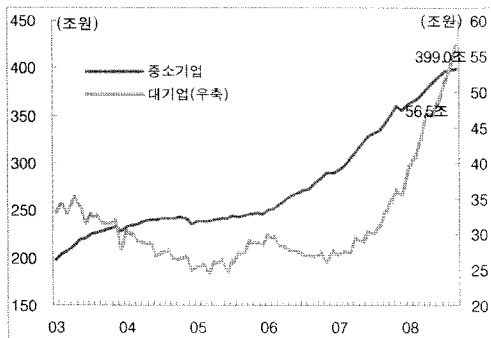
1. 중소기업금융에 초점을 둔 정책제언

- 현재의 금융 불안은 자칫 우리경제를 장기불황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
 -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stag-flaation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contingency plan이 필요한 상황임
 - 일련의 정부대책은 소비와 투자 촉진, 급격한 자산가격의 하락방지, 은행의 부실방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음
 - 여기서는 중소기업금융에 초점을 둔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대출 및 연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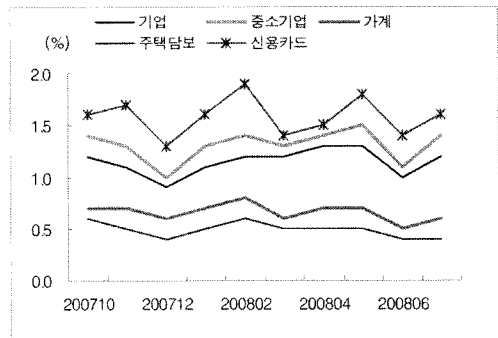
- <그림 9>에서 보듯이, 2008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99조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그림 10>의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2008년 7월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해줌

<그림 9>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잔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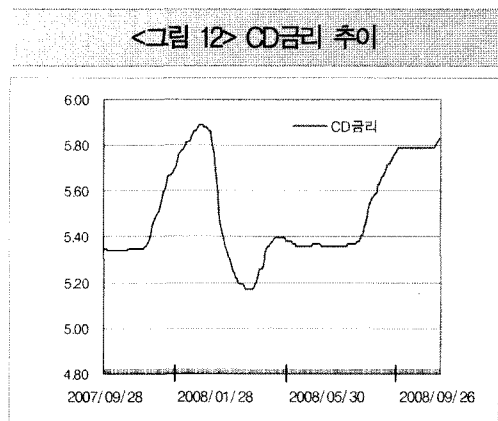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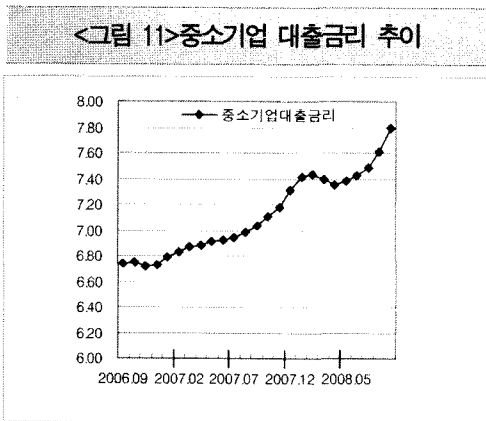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중기청

<그림 10> 부문별 연체율 추이



○ <그림 11>에서 보듯이, 최근 금융불안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12>의 CD금리 인상 추이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음

- 그러나 CD금리는 9월말부터 은행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대책 등에 의해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 KIKO 피해 현황

○ 실제 환헷지효과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이 내장된 KIKO상품⁶⁾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임

- 중소기업중앙회 KIKO 공동대책위에 가입한 일부기업(144개 수출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은 <표 6>에서 보듯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10.27 조치로 인해 KIKO 가입 수출기업은 동 상품에 대한 결제자금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결제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는 경우 거래 중소기업에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봄

- 비록 KIKO 피해 고객의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KIKO 상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전문고객에 대한 거래적격성, 공정거래, 중요사항의 고지의무와 같은 감독기관의 투자자보호 역할 미흡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발생

6) 이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송치승, 최은주, Diamond Fund와 ARS 사건 해결사레가 KIKO에 주는 시사점분석, KOSBI ISSUE PAPER, 제47호, 2008.10

<표 6> 144개 수출중소기업의 KIKO 피해 현황

(단위 : 천원)

기업수	기정산액	평가손	총손실액	평균평가손	평균 총손실액	환율(\$)	환율(€)	환율(¥)
146	145,072,959	282,668,445	427,741,404	1,936,085	2,929,736	1,000	1,570	940
146	145,072,959	596,164,581	741,237,540	4,083,319	5,076,969	1,100	1,550	1,032
146	145,072,959	958,253,647	1,103,326,606	6,563,381	7,557,032	1,200	1,700	1,160
146	145,072,959	1,293,520,714	1,438,593,673	8,859,731	9,853,381	1,300	1,780	1,200
146	145,072,959	1,622,855,781	1,767,928,740	11,115,451	12,109,101	1,400	1,800	1,29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주) 기정산액은 2008년 7월분까지 정산한 금액이고, 평가손은 2008년 8월부터 남은 잔여기간 동안 결재해야 할 금액이며, 이들 수치를 합한 것이 총손실액임

□ 비상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위험에 대한 준비와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은행의 유동성 부족우려가 대출중소기업의 자금회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건전 중소기업의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향후 유동성부족을 야기한 은행들의 경영형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기관차원의 사후조치도 필요함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활용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해야 함
- 구조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구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지원책 마련(예: 매각자산에 대한 세금절감 등)이 요구됨
- 신생 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이 직접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M&A에 의한 투자회수를 지원(예: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원활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 완화, 인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인정 등)7)
- 또한 전통적 벤처캐피탈(Traditional Venture Capital) 이외에 기업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전략적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예, 출자총액제한 완화)

7) 이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송치승, 오승현, 중소·혁신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시장의 역할제고,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7-15, 2007.

○ 정부는 11.3 대책에서 보증확대를 위해서 보증규모를 6조원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비상 시국을 감안 신용보증제도의 보증공급규모의 탄력적 운영과 보증기관의 역할에 맞는 보증역할을 적극 추진

- <그림 13>에서 보듯이, 2006년말 GDP 대비 보증규모비율은 5.29%였으며, 카드난이 발생했던 2002년에는 동 비율이 7.87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증공급규모는 중소기업대출 위협요인의 현재화에 맞추어 평시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일시적 유동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중을 경제금융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 발전방안, 2007.

주: 보증총액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세 가지 금액을 합친 것임

○ 중소기업유동성 지원 특례자금의 확충

- 10.1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원 회생특례자금은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하는 경우 매우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0월 27일까지 시행기관인 중진공에 동 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 68개사의 신청금은 411억원으로 보도되고 있음(서울경제, 10.29일자)

- 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대신 현금출자도 모색 필요
 - 정부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의한 자금공급을 증대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현물출자는 해당은행의 형식적인 대출여력만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으로 현물출자 대신 현금출자를 통해 실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음
- 바젤Ⅱ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는 매우 미흡하며, 향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주의 신용도별로 소액 자기자본 확충이 요구되는 바젤Ⅱ 실시의 연기가 필요
 - 바젤Ⅱ의 실시는 대출은행의 소요자기자본비율(BIS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자금상환 요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V. 종합의견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 역사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로 전이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음
- 안일한 낙관은 금물이지만 필요이상의 비관 또한 경제주체에 부정적 쓸림현상(herding effect)으로 작용하여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비상한 각오와 이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은 경제주체들에게 금융시장과 우리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봄
- 특히,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위축 현상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적극 요망됨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http://fisis.fss.or.kr/>)
- 구본성, 은행채 스프레드와 수신구조, 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17권 42호, 2008
- 기획재정부, 일일경제지표 (<http://www.mosf.go.kr/>)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10.1-2008.11.3)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 2008.10.
- 미국연방준비은행, <http://stlouisfed.org/>
- 송치승, 오승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시장의 역할제고,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7-15, 2007.
- 송치승, 최은주, Diamond Fund와 ARS 사건 해결사례가 KIKO에 주는 시사점분석, 중소기업연구원, KOSBI ISSUE PAPER, 제47호, 2008.10.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발전, 2007.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 증권선물거래소, <http://www.krx.co.kr>.
- 증권업협회, <http://www.ksda.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한국증권연구원, 신용과생상품시장의 혁신과 규제방향, 2008.9.
- 한상범, 월가의 금융위기와 자기자본규제,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 weekly, 2008-40호, 2008.

- 본 자료의 내용은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연구진 개인의 견해입니다.
- 본 자료의 내용 일부를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료문의 : 경제분석실 송치승 연구위원 (02) 707-9843 cssong@kosbi.re.kr
경제분석실 최은주 연구원 (02) 707-9859 ejchoi@kosbi.re.kr